

고1국어  
미래엔

2(2)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 -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유형 1

내용 일치 유형으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글쓰기가 경험한 일과 깨달음의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글은 꿈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그러한 꿈과 관련된 글쓰기의 경험과 깨달음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에게 꿈을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있다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너 커서 뭐가 될래?”

내 꿈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까지 가장 오래 간직했던 꿈은, 부끄럽지만 피아니스트였다. 피아니스트의 삶이 어떤 건지는 잘 몰랐지만 나는 그저 피아노가 좋았다.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좋아했다.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꿈의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난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조숙한 척만 했지만 전혀 철들지 못했던 초등학생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 나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나는 꿈을 여러 번 포기했다. 때로는 성적이 모자라서,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때로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싫증 나서 수도 없이 꿈을 포기했다. 내 꿈의 역사는 ‘포기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 나의 진

짜 문제를 알게 되었다.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무리 이모의 말이 충격적이었더라도,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좀 더 세상과 싸워 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질투하고 존경한다.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제대로 부딪쳐 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는,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꿈을 이루는 데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님을.

얼마 전 내 소중한 벗이 불쑥 물었다.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그 말이 오랫동안 아팠다. 가슴에 ㉣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시리게 아팠다. 내 삶의 치명적인 허점을 건드리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오래 알아 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포기하는 버릇’을 가슴 깊이 내면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도전하기 전에, 미리 온갖 잔머리를 굴려 내 인생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고, 안 되겠구나 싶어 지레 포기하는 것.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도 없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버릇. 그것은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 같다. 처음에는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득 덮인 녹 때문에 원래 모습조차 알 수 없게 되어 버리는. 나는 진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마저 잃어

버린 것 같았다.

나의 글을 읽는 젊은이들은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도 말았으면 한다.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건 괜찮다. 예컨대, ㉠ 내가 얼마나 그 꿈에 몰두해 있을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것. 밥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고, 약속 시각도 잊고,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

-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1. 윗글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벗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주어진 상황을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이다.
- ③ 속담을 인용하여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되지 않은 일에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이 글을 쓴 이유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현실적인 꿈을 갖도록 권유하기 위함이다.

2. ㉠~㉣에 대한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피아니스트를 향한 꿈의 열정
- ② ㉡ :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포기하게 된 계기
- ③ ㉢ : 실패가 두려워 제대로 된 도전을 못 해본 것
- ④ ㉣ : 타인이 몰랐으면 했던 부분을 지적한 친구의 날카로운 말
- ⑤ ㉣ : 글쓴이가 생각하는 진로 선택의 기준

3.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앞으로 직업을 고려할 때는 이 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군.
- ② 미래 사회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 글의 조언처럼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같아.
- ③ 미래 사회는 직업과 경력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사회의 평가 기준으로 직업을 고려하면 안 되겠어.
- ④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 추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므로,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 짓지 말아야겠어.
- ⑤ 미래에 직업을 선택할 때 누군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니, 안정적이고 유망한 직업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 것이 좋겠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꿈의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난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조숙한 척만 했지 전혀 철들지 못했던 초등학생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나)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다.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무리 이모의 말이 충격적이었더라도,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다라면, 좀 더 세상과 싸워 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다) 나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질투하고 존경한다.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라) 나의 글을 읽는 젊은이들은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도 말았으면 한다.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마) 하지만 이런 건 괜찮다. 예컨대, 내가 얼마나 그 꿈에 몰두해 있을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것. 밥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고, 약속 시각도 잊고,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

-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4. 윗글에서 글쓴이가 젊은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자.
- ② 자신이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찾자.
- ③ 실패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④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자.
- ⑤ 생활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말자.

5. (가)~(마) 중, 글쓴이가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담겨 있는 글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6. 윗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로를 정할 때는 자신이 몰두할 수 있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한다.
- ② 진로를 정할 때는 현실 가능성이나 생활의 안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 ③ 진로를 정할 때는 가정 형편을 잘 살피고 부모님께 부담이 될 것 같은 진로를 결정하면 안 된다.
- ④ 진로를 정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직업이나 미래에 주목받을 만한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
- ⑤ 진로를 정할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너 커서 뭐가 될래?”

내 꿈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까지 가장 오래 간직했던 꿈은, 부끄럽지만 피아니스트였다. 피아니스트의 삶이 어떤 건지는 잘 몰랐지만 나는 그저 피아노가 좋았다.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좋아했다.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꿈의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난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조숙한 척만 했지 전혀 철들지 못했던 초등학생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나) 그 이후로도 나는 꿈을 여러 번 포기했다. 때로는 성적이 모자라서,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때로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실증 나서 수도 없이 꿈을 포기했다. 내 꿈의 역사는 ‘포기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다.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무리 이모의 말이 충격적이었던더라도,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좀 더 세상과 싸워 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다) 나는 달갈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질투하고 존경한다.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제대로 부딪쳐 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는,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꿈을 이루는 데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님을.

(라) 얼마 전 내 소중한 벗이 불쑥 물었다.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그 말이 오랫동안 아팠다.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시리게 아팠다. 내 삶의 치명적인 허점을 건드리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오래 알아 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마)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포기하는 버릇'을 가슴 깊이 내면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도전하기 전에, 미리 온갖 잔머리를 굴려 내 인생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고, 안 되겠구나 싶어 지레 포기하는 것.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도 없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버릇. 그것은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 같다. 처음에는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득 덮인 녹 때문에 원래 모습조차 알 수 없게 되어 버리는. 나는 진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꿈을 포기했던 계기를 말하고 있다.
- ② (나) : 꿈을 포기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③ (다) : 실패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라) : 상대방을 비판하는 일을 경계하고 있다.
- ⑤ (마) : 포기하는 버릇의 폐해를 말하고 있다.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 나의 진

**고1국어  
미래엔**

**2(2)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 - 서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필수 유형**

내용 일치 유형으로 서술형이 출제가 되었는데, 글쓰기가 생각하는 진로 선택의 방법과 기준을 확인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에게 꿈을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있다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너 커서 뭐가 될래?”

내 꿈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까지 가장 오래 간직했던 꿈은, 부끄럽지만 피아니스트였다. 피아니스트의 삶이 어떤 건지는 잘 몰랐지만 나는 그저 피아노가 좋았다.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좋아했다.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꿈의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난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조숙한 척만 했지 전혀 철들지 못했던 초등학생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나는 꿈을 여러 번 포기했다. 때로는 성적이 모자라서,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때로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싫증 나서 수도 없이 꿈을 포기했다. 내 꿈의 역사는 ‘포기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짜 문제를 알게 되었다.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무리 이모의 말이 충격적이었더라도,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좀 더 세상과 싸워 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질투하고 존경한다.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제대로 부딪쳐 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는,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꿈을 이루는 데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님을.

얼마 전 내 소중한 벗이 불쑥 물었다.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그 말이 오랫동안 아팠다.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시리게 아팠다. ㉡ 내 삶의 치명적인 허점을 건드리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오래 알아 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포기하는 버릇’을 가슴 깊이 내면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도전하기 전에, 미리 온갖 잔머리를 굴려 내 인생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고, 안 되겠구나 싶어 지레 포기하는 것.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도 없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버릇. 그것은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 같다. 처음에는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득 덮인 녹 때문에 원래 모습조차 알 수 없게 되어 버리는. 나는 진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

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나의 글을 읽는 젊은이들은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도 말았으면 한다.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건 괜찮다. 예컨대, 내가 얼마나 그 꿈에 몰두해 있을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것. 밥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고, 약속 시각도 잊고,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

-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6. ㉠에 해당하는 답을 해당 단락에서 찾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그대로 쓸 것.

1.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윗글을 바탕으로 아래 빈칸을 작성하시오.

'나의 진짜 문제'는 ( ) 것이다.

2.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윗글을 바탕으로 아래 빈칸을 작성하시오.

'내 삶의 치명적인 허점'은 ( ) 것이다.

3. 윗글의 글쓴이가 젊은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4. 진로를 선택할 때 글쓴이가 제시한 선택 기준을 서술하시오.

5. 진로를 선택할 때 글쓴이가 당부하는 세 가지 내용을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조건>

- '진로를 선택할 때 ~ 좋겠다.'로 작성할 것.

## 정답 및 해설

### 내신형 문제

#### 1. <답> ①

이 글에서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라는 벗의 말을 통해 자신의 태도에 대해 반성하였다.

② 이 글에서 글쓰기가 주어진 상황을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이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글에서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라는 속담을 인용하였지만,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이 글에서 되지 않은 일에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이 글을 쓴 이유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현실적인 꿈을 갖도록 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전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다.

#### 2. <답> ②

㉠은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포기하게 된 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꿈을 포기하게 된 계기는 앞부분에 나오는 이모와의 수다 때문이다.

① ㉠은 꿈에 대한 열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피아니스트를 향한 꿈의 열정을 의미한다.

③ ㉡에서 말하는 글쓰이의 진짜 문제는 실패가 두려워 제대로 된 도전을 못 해본 것이다.

④ ㉢은 글쓰이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말을 드러낸 것이다.

⑤ ㉣은 글쓰이가 생각하는 진로 선택의 기준에 해당한다.

#### 3. <답> ⑤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글쓰이의 말이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유명한 직업에 대한 자료’를 찾겠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① ‘내가 얼마나 그 꿈에 몰두해 있을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것. 밥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고, 약속 시각도 잊고,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

이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의 글을 읽는 젊은이들은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에서의 ‘실현 가능성’은 현재 사회의 평가 기준에 비춘 실현 가능의 여부이다. 따라서 현재 사회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직업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업을 고를 때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해당 학생의 반응은 적절하다.

④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도 말았으면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답> ④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①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좀 더 세상과 싸워 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하지만 이런 건 괜찮다. 예컨대, 내가 얼마나 그 꿈에 몰두해 있을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것. 밥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고, 약속 시각도 잊고,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 <답> ①

(가)의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조숙한 척만 했지 전혀 철들지 못했던 초등학생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때부

터 나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 : 꿈을 포기했던 과거에 대한 후회
- ③ (다) : 실패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
- ④ (라) : 진로 선택에 대한 당부
- ⑤ (마) : 꿈을 향한 도전에 대한 당부

6. <답> ①

'예컨대, 내가 얼마나 그 꿈에 몰두해 있을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것. 밥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고, 약속 시각도 잊고,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도 말았으면 한다.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므로, 해당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③ 글쓴이는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될 수 있다는 사실에 꿈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④, ⑤ 해당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7. <답> ④

(라)에서는 친구의 비판으로 인한 깨달음과 반성이 드러나고 있다.

- ①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조숙한 척만 했지 전혀 철들지 못했던 초등학생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에서는 '아무리 이모의 말이 충격적이었던 라도,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좀 더 세상과 싸워 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꿈을 포기했던 과거를 반성하였다.
- ③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마)에서는 포기하는 버릇에 대한 반성과 폐해를 말하였다.

8. <답> ②

- ㉠은 은유법에 해당하지만, '춤추는 파도'는 의인법에 해당한다.
- ① ㉡ : 은유법
- ③ ㉢ : 풍유법
- ④ ㉣ : 도치법
- ⑤ ㉤ : 열거법

9. <답> ⑤

㉢에는 대상을 속담이나 격언 등에 빗대는 표현 방법인 풍유법이 활용되었다.

10. <답> ①

1번에서는 은유법이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11. <답> ②

- ㉠ : 대상을 속담이나 격언 등에 빗대는 표현 방법 = 풍유법 = '나는 달갈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에서 활용되었다.
- ㉡ :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표현 방법 = 직유법 = '그것은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 같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 = 도치법 =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제대로 부딪쳐 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는,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꿈을 이루는 데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님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인간이 아닌 대상에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는 표현 방법 = 의인법 = 의인법은 이 작품에서 확인할 수 없다.

㉤ :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하는 표현 방법 = 설의법 = 설의법은 이 작품에서 확인할 수 없다.



서술형 문제

1. <답> '나의 진짜 문제'는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2. <답> '내 삶의 치명적인 허점'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3. <답> 진로를 정할 때 실현 가능성이나 생활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자신이 몰두할 수 있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한다. /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
4. <답> 내가 몰두할 수 있는지, 가슴을 뛰게 하는지에 따라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
5. <답> 진로를 선택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 진로를 선택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 진로를 선택할 때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6. <답>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 보지 못했다는 것

서지정보

저자 이재균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1738-1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1.09.1

가격 1500원

값 1,500원



ISBN 979-11-377-1738-1 (PDF)